

학생독립운동 참여 156개교 학생 대표 광주 모인다

〈남측〉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올해로 90주년을 맞는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3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제89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학생독립운동은

광주서 시작 전국 번진 항일시위 3·1운동과 함께 3대 항일운동 지난해 정부 주관 첫 기념식도

광주학생독립운동은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시작돼 이듬해 3월까지 전국은 물론 해외까지 뻗어나간 학생 주도의 항일 시위다. 1919년 3·1운동, 1926년 6·10만세운동과 함께 3대 항일운동(민족독립운동)으로 꼽힌다. 이 날을 기념한 학생의 날(11월 3일)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1929년 10월 30일 광주에서 나주로 가는 통학열차 안에서 일어난 광주고등보통학교(현 광주제일고) 학생들과 일본인 학교인 광주중학생들의 충돌이 도화선이 됐다.

11월 3일 일방 매이지 생일인 명치절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일본인 학생들과 충돌 후 광주 시내에서 항의시위를 벌였고 시위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국으로 확산했다.

서울, 개성, 부산, 진주, 청주, 광주, 대전, 홍성, 예산, 조지원, 부여, 전주, 정읍, 고창, 이리, 평양, 신의주, 정주, 선천, 영변, 함흥, 원산, 경성, 대구, 춘천 등에서 동맹휴교나 시위운동이 벌어졌다.

전국적으로 1941 학교가 참가한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참가 학생 수는 5만4000명으로 당시 전체 학생의 절반 이상 규모다. 국가보훈처는 시위 참여로 퇴학을 당한 학생이 582명, 무기정학 2330명, 강제전학 298명, 검거 1600여명(광주 170여명 실행)으로 파악하고 있다.

남북이 갈라지기 전 일제강점기 학생들이 주도한 항일운동으로 만주 등 해외까지 뻗어나간 광주학생운동의 경우 '나주에서 촉발되고 광주에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정권 성향에 따라 그 의미가 축소되거나 왜곡됐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해 처음 정부주관으로 치러진 기념식에서 "학생의 날"은 정권에 따라 기복을 겪었지만, 기념행사는 광주교육청이 주관했다. 그날의 이름이 '학생의 날'이고, 학생독립운동이 광주에서 시작됐다는 이유에서 그렇게 했다. 그러나 그것은 학생독립운동에 대한 세상의 이해와 정부의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고 언급하기도 했다.

1930년 상해임시정부 국무령 김구 선생이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침체된 독립운동을 진작시키고 상해임시정부의 재정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고 언급한 내용의 편지가 지난해 공개(광주일보 2018년 8월 14일 2면)되기도 했다.

정부는 광주학생독립운동 90주년을 맞아 항일학생운동 참여 학교 학적(제적)부 전수 조사를 진행, 학생독립 유공자 발굴에 나섰다.

/김형호 기자 kh@kwangju.co.kr

광주학생독립운동 90주년...문화예술 축전 전국화 행사로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 당시 동맹휴업 등의 방식으로 항일운동에 참여했던 남측 학생 대표들이 90주년을 맞아 한자리에 모인다.

이 사업을 추진 중인 광주시교육청은 북측 참여 학교 대표자들을 올 기념식에 맞춰 광주로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광주학생독립운동 90주년을 맞아 정부가 진행 중인 '문화예술 축전 전국화 행사'에서 어떤 결과를 낼지 주목된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주도했으나 사회주의 계열로 분류돼 서훈자 명단에서 제외된 광주고등보통학교 출신 장재성(1908~1950) 선생이 서훈자 명단에 포함될 지도 관심이 쏠린다.

◇학생독립운동 참여 학교 대표자들 광주로 = 광주학생독립운동 정신계승 민관협의회는 '광주시교육청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조례'에 따라 광주학생독립운동 정신계승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난해 꾸려졌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등 10개 학생독립운동 관련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민관협의회는 이날 광주학생독립운동에 참여한 남한 156개교 학생대표와 17개 사·도교육청 대표학생을 초청해 '전국 청년학생 문화예술 축전 전국화 행사'를 치르기로 뜻을 모았다.

행사는 기념일인 11월 3일 전후로 1박 2일로 치를 계획이다. 민관협의회는 광주시교육청이 지난해 북측에 제안했던 '학생독립운동 90주년 남북학생 교류 공동행사'도 적극 추진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1929년 11월 3일 나주에서 촉발되고 광주에서 시작된 광주학생독립운동은 동맹휴업 등의 방식으로 전국으로 확산했다. 이듬해까지 북측에서 164개 학교가 참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남북이 갈라지기 전 남북은 물론 만주·연해주 등 해외로 뻗어나간 학생 중심의 항일 운동이었던 것이다.

박지홍 민관협의회장은 "90주년 기념일을 맞아 학생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다양한 사업발굴이 필

북측 대표 올 기념식 초청 추진 유공자 기준 완화... 퇴학 포함 정부, 문혀있던 유공자 발굴 착수 사회주의 장재성 선생 포함 관심

요하다"며 "예산 지원 등이 뒷받침돼 명실상부한 90주년 기념행사를 마련하도록 정부와도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학생독립운동 정신계승 민관협의회는 '광주시교육청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조례'에 따라 광주학생독립운동 정신계승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난해 꾸려졌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등 10개 학생독립운동 관련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정부, 항일 학생운동 유공자 발굴 결과 관심 = 정부가 광주학생독립운동 90주년을 맞아 서훈에서 누락된 학생독립운동 유공자 발굴에 나서 그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12월 그동안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다수의 유공자를 포상에서 누락시켰다는 지적 등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고, 유공자 찾기에 나섰다. 보훈처는 유공자 발굴 방법의 하나로 '항일학생운동 참여 학교 학적(제적)부' 전수 조사를 택했다.

발굴에 앞서 정부는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을 개정, '일제강점기 학생이 독립운동에 참여해 퇴학을 당한 경우'를 유공자 포상 기준에 추가했다. '수형·육고 3개월 이상'이라는 기존 포상 심사 기준 때문에 학생독립운동 참가자 상당수가 포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학생에 대해서는 수형사실이 없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주도한 선진회.



장재성 선생

더라도 독립운동 참여로 퇴학을 당한 경우 포상한다는 내용을 새로 담았다. 전수조사 대상은 전국 166개 학교 중 학적부가 국가기록원 또는 학교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 55개교다.

광주·전남에서는 광주제일고(옛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 광주자연과학고(광주공립농업학교), 전남여고(광주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 나주초(나주공립보통학교·나주농업보통학교), 전남대 여수캠퍼스(여수공립간이수산학교) 등 모두 6곳이다.

현재까지 국가기록원에서 확인된 22개 학교 독립운동 관련 처벌자는 400여명으로, 이 중 85명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학적(제적)부에는 3·1운동, 광주학생항일운동, 동맹휴학 등 구체적인 처벌사유와 징계내용이 명확히 기재돼 학생

개 개인의 항일 독립운동 참여사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보훈처는 학생독립운동으로 확인된 퇴학자는 3·1운동 100주년 및 항일학생운동 90주년이 되는 내년 학생운동 계열 독립유공자 포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새롭게 선정될 유공자 명단에 사회주의 계열 학생독립운동 유공자 선정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사회주의 활동자 포상은 지난 2005년 3·1절에 여운형 등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가 54명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 포상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사회주의 계열 인사로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주도하다 4년간 옥살이를 한 장재성(광주고보 졸업생) 선생조차 해방 이후 행적을 문제 삼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기준 학생독립운동 유공자는 모두 427명으로 건국훈장 246명, 건국포장 56명, 대통령 표창 125명이다.

/김형호 기자 kh@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30년 경력의 조역사 010-6211-4585"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준주거지역)
토지:1686,50㎡(510평) 건물:3,000,80㎡(907,74평)
지상2층 매매가:45억 중심상권, 아파트밀집지역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 (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55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동구 장동 (준주거지역)
토지:136,20㎡(41,20평) 건물:265,58㎡(80,34평)
지하층 지상3층 매매가:15억 문화전당역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하남동 (준주거지역)
토지:979,70㎡(296,36평) 건물:1928,89㎡(583,49평)
지상4층 매매가:65억 대로변, 아파트밀집지역, 상권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434,44㎡(131,4평) 건물:2536,91㎡(767,42평)
지하층 지상7층 매매가:55억 이마트인근, 상권최상, 수익률최상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900㎡(272평) 건물: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36억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770㎡(233평) 건물:1,458㎡(441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5700㎡(1700평) 건물:6500㎡(1900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130억
건물2동, 신법적용 350베드 가능 요양원 40베드 별도, 주차장넓음

경매

- ★ [다가구(원룸)]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364㎡(110,1평) 건물:566,11(171,2평) 감평가18억1천7백만원 최저가 5억7천2백만원
- ★ [공장용지] 나주시 산포면 신도리 대지:11065,1㎡(3347,2평) 감평가 24억7천8백만원 최저가 (70%) 17억3천5백만원
- ★ [근린주택] 영광군 법성면 토지:708㎡(214,2평) 건물:266,61㎡(80,6평) 감평가 5억2천8백만원 최저가 (70%) 3억7천만원
- ★ [토지] 나주시 남평읍 오계리 대지 25351㎡(7668,7평)전원주택단지적합 감평가 27억1천2백255만원 최저가(70%)18억9천8백79만원
- ★ [의료시설] 함평군 월야면 월계리 대지:11139㎡(3369,5평) 건물:5530,56㎡(1612,5평) 감평가 40억3천5백만원 최저가(70%) 28억2천4백만원
- ★ [양계장] 함평군 월야면 양정리 대지:136695,78㎡(41350,5평) 건물:24737,02㎡(7482,9평) 감평가 62억7천2백만원 최저가(70%) 43억9천만원
- ★ [숙박시설] 광산구 우산동 대지:627,8㎡(189,9평) 건물:2122,01㎡(641,9평) 감평가 35억7천만원 최저가 25억
- ★ [주유소] 서구 농성동 토지 8131,8㎡(246,174평) 건물 320,23㎡(278,37평) 감평가 15억5천만원 최저가 15억5천만원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
- ★ [토지] 광주 북구 삼각동 -토지:5,385㎡(1629평) 매매가:60억
투자 가치 최상, 도로변 광고효과 좋음, 분할가능
- ★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주상동 -토지:9,157㎡(2770평) 매매가:64억
도로 인프라 최고, 공장이나 물류창고 적합
- ★ [토지]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토지:15,953㎡(4825평) 매매가:12억1천만 자연취락지구, 10m도로접
- ★ [토지] 전라남도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토지:52,504㎡(15882평) 매매가:8억 임야, 계획관리지역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매매·임대 다량보유·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